

# 패션 전공자의 AI 디자인 도구 수용과 창의성 인식 간의 관계: 저작권 관련 윤리적 우려의 조절효과

김장현

화성의과학대학교 라이프스타일테크학과

e-mail: jamie8122@naver.com

## The Relationship Between AI Design Tool Acceptance and Perceived Creativity Among Fashion Students: Moderating Effects of Copyright-Related Ethical Concerns

Jang-Hyeon Kim

Dept. of Lifestyle-Tech, Hwasung Medi-Science University

### 요약

최근 패션디자인 교육 분야에서는 ChatGPT, Midjourney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디자인 도구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러한 도구 수용이 학습자의 창의성 인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디자인 도구 수용이 지각된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저작권 관련 윤리적 우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회귀 기반 조건과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인공지능 디자인 도구 수용은 지각된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저작권 관련 윤리적 우려는 인공지능 디자인 도구 수용과 창의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윤리적 우려 수준이 높을수록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더 나아가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윤리적 우려는 간접효과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 디자인 도구 수용이 학습자의 창의성 인식 형성과 관련된 심리적 과정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패션디자인 교육에서는 창의적 자기효능감 강화와 함께 저작권 및 윤리 문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AI 도구 수용과 창의성 인식 간의 관계를 매개·조절 구조로 규명한 연구로서, 향후 교육적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1. 서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확산은 패션디자인 교육 환경과 창의적 설계 과정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텍스트 및 이미지 기반 생성 모델의 발전은 디자인 콘셉트 도출, 시각화, 아이디어 변형, 무드보드 제작 등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패션디자인 학습에서 인간-AI 협업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디자인 도구는 단순한 보조 기능을 넘어,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 과정과 설계 탐색 방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반복적 시도와 대안 생성, 시각적 피드백을 통해 창의적 실험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AI 활용이 실제로 학습자의 창의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기술 수용이나 사용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AI 도구 수용이 학습자의 창의적 결과 인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심리적 메커니즘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특

히 패션디자인 교육은 반복적 탐색, 미적 판단, 창의적 해석이 결합된 특수한 학습 환경으로,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학습자의 창의적 자기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도구에 대한 수용이 지각된 창의성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심리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 역할과 저작권 관련 윤리적 우려의 조절 역할을 중심으로, AI 도구 활용이 학습자의 창의성 인식에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AI 도구 수용을 단순한 기술 채택이 아닌 창의성 형성과 관련된 심리적 과정으로 확장하여 이해하고, 패션디자인 교육에서의 효과적인 AI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도

구 수용, 지각된 창의성, 창의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저작권 관련 윤리적 우려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둘째, 패션디자인 전공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인공지능 디자인 도구 수용, 지각된 창의성, 창의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저작권 관련 윤리적 우려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변수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척도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수집된 자료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기반 PROCESS macro를 활용한 회귀 기반 조건과정 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먼저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odel 4를 적용하였으며, 이후 저작권 관련 윤리적 우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odel 7을 적용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5,000회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확인하였다. 모든 회귀분석에는 성별, 연령, AI 도구 사용 경험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패션디자인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디자인 도구 수용과 지각된 창의성 간의 관계에 한정되며, 연구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주요 생성형 AI 도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및 결론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디자인 도구 수용이 지각된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저작권 관련 윤리적 우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 디자인 도구 수용은 지각된 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 기반 도구 활용이 패션디자인 학습 과정에서 아이디어 탐색과 시각적 표현을 확장시키며, 학습자의 창의성 인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둘째,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인공지능 디자인 도구 수용과 지각된 창의성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 도구에 대한 수용이 학습자의 창의적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하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지각된 창의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매커니즘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셋째, 저작권 관련 윤리적 우려는 인공지능 디자인 도구 수용과 창의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윤리적 우려 수준이 높을수록 AI 도구 수용이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AI 활용 과정에서 저작권 및 윤리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학습자의 심리적 수용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저작권 관련 윤리적 우려는 인공지능 디자인 도구 수용이 지각된 창의성에 미치는 간접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 도구 활용이 창의성 인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단순한 직선적 관계가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 윤리적 인식이 결합된 복합적 구조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인공지능 디자인 도구 수용은 패션디자인 교육에서 지각된 창의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윤리적 우려가 핵심적인 심리적·인지적 매커니즘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디자인 교육에서 AI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교육적 접근과 함께, 저작권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 디자인 도구 수용과 창의성 인식 간의 관계를 매개·조절 구조를 통해 통합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패션디자인 교육에서 AI 활용의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는 향후 관련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5A8009615)